

북한산 태고사 수장 책판과 관련기록 연구

A Study of Woodblocks and Relevant Record of the Woodblocks at
Taego Temple in Bukhansan

남 권 희 (Nam, Kwon-Hee)*

권 오 덕 (Kwon, Oh-Deok)**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1 사료와 문헌의 기록 |
| 2. 태고사의 지리적 위치와 유물 | 3.2 책판목록의 기록 |
| 2.1 지리적 위치 | 3.3 태고사 수장 책판 인출본 |
| 2.2 유물 | 4. 맺음말 |
| 3. 태고사 수장 책판 | <참고문헌> |

<초 록>

이 연구는 太古寺 수장 책판에 대해 사료와 여러 문헌기록을 참고하여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태고사에서 수장하고 있던 책판의 대략적인 종수와 그 수량을 확인해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첫째, 사료와 여러 문헌기록을 살펴본 결과 태고사에서 수장하고 있던 책판의 종수와 수량은 약 40여종 5,700여판으로 추정된다.

둘째, 『內閣日曆』과 『日省錄』 그리고 책판목록과 『摠戎廳事例』의 『北漢太古寺所在冊板數爰』 및 『北漢太古寺所在冊板區別成冊』 등을 통하여 태고사에 수장되어 있던 구체적인 책판명과 수량, 책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태고사 수장 책판으로 인출한 목판본들이 현재 국내외와 해외의 각 기관에 6종이 소장되어 전하고 있다.

넷째, 기록상으로 태고사 수장 책판의 종수가 40여종으로 확인된 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후 태고사 수장 책판의 인출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산 지역의 출판문화와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要語: 太古寺 冊板, 『北漢太古寺所在冊板數爰』, 『北漢太古寺所在冊板區別成冊』, 『北漢誌』, 『鏤板考』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kwon-1027@hanmail.net)

접수일: 2014년 5월 28일 최초심사일: 2014년 6월 16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5일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woodblocks at Taego temple and relevant record of the woodblocks in various historical records. Especially we focused the type and number of woodblocks at the temple. According to the study, we could find out these facts as follows ;

1. The number of woodblocks in the Taego temple were estimated about 6,000 pieces of 40 kinds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and various literature.
2. We could examine the number, the title and the condition of woodblocks in Taego temple via related records, for example *Naegakilryuk*, *Ilseungrok*, 「Bukhantaegosasojae-chaekpansoohyo」, *Bukhantaegosasojae-chaekpangoobyulseungchaek* so forth.
3. The existing book that was printed with the woodblocks in the temple were sum up to 6 kinds, which were remained in various institutions.
4. In historical records, the kinds of woodblocks in the temple were regarded 40, so we need to carry out further research in later. It could be helpful in the understanding of publishing trend at Bukhansan and the temples in the area.

Key words: Taego temple, woodblocks, Bukhantaegosasojaechaekpansoohyo, *Bukhantaegosasojaechaekpangoobyulseungchaek*, *Bukhanji*, *Noopango*

1. 머리말

이 연구는 太古寺 수장 책판에 대하여 사료와 여러 문헌기록을 참고하여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태고사에서 수장하고 있던 책판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태고사나 太古 普愚國師에 관한 선행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¹⁾ 왔는데 비하여 태고사에 수장된 책판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²⁾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하여 우선 사료인 『日省錄』과 『內閣日曆』에서 ‘太古寺 冊板’ 또는 ‘北漢板’, ‘北漢山城 經書板本’ 등으로 언급되고 있는 기사를 뽑아서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한편 사료 이외에 여러 책판목록과 『北漢誌』를 비롯한 기타 문헌에서도 태고사 수장 책판이 언급되고 있다. 그 예로 『摠戎廳事例』의 『北漢太古寺所在冊板數爻』와 『北漢太古寺所在冊板區別與十一寺長箭片箭筒兒洗塵成冊』(이하 『北漢太古寺所在冊板區別成冊』으로 약칭) 등에서는 책판명과 수량 그리고 책판의 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조선후기 개인 문집 등에서도 태고사나 태고사 책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 또한 참고를 하여 본 연구의 재료로 삼았다.

조선시대 책판 또는 목판에 대한 개념이나 그 목판 인쇄술이 끼친 영향은 이미 수많은 논문과 단행본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져 본고에서 장을 할애 한다면贅言이 될 것이기에 여기서는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다. 한편 태고사 수장 책판에 대한 연구에 앞서 책판의 수장 장소인 태고사에 대한 지리적 위치와 조선시대 문인들이 남기고 간 태고사와 관련된 시문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태고 보우국사와 관련

1) 그간에 태고 보우국사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종합하여 대륜불교문화연구원에서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太古 普愚國師 論叢』과 역대고승총서 7 『太古普愚國師』편을 발간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도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었다. 또한 태고사에 대해서도 사찰을 소개하는 책이나 문화유적을 다루는 책에서 圓證國師塔碑와 圓證國師塔 등과 함께 소개가 되고 있다.

2) 태고사 수장 책판을 언급한 논문으로는 김영진, “교서관인서체자본 한문소설 4종에 대하여,” 『(포럼·그림과 책) 논문집』 (1) (서울: 화봉문고, 2011), 79-82.; 김영진, “朝鮮 刊『剪燈新話句解』諸本 研究 (1),” 『어문논집』 Vol.65(2012), 300에서 간략하게 언급이 되고 있다.

된 탐과 탐비에 대하여 따로 장을 주어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차후 태고사 수장 책판의 인출본에 대한 조사 및 추가로 인본을 찾아내어 보완을 하게 되면 북한산 지역의 출판문화와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2. 태고사의 지리적 위치와 유물

2.1 지리적 위치

태고사는 고려시대 태고 보우국사가 中興寺의 주지로 있을 당시 개인 수도 장소로 삼았던 곳으로, 중흥사의 동쪽에 있다고 하여 東庵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현재 태고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의 사찰로 그 주소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406 태고사’로 되어 있다.



<그림 1> 태고사 가람 배치도

조선시대의 문헌기록과 『韓國寺刹全書』 등에 나타난 태고사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 ① 聖能 編, 『北漢誌』(1745), 太古寺條
太古臺 아래 重興寺 왼쪽 봉우리에 있다. 고려시대 僧 普愚가 이곳에 거주하면서 ‘太古’ 두 글자로 扁額을 삼았으며, ‘永嘉體’를 모방하여 歌 한 편을 지었다. 그가 죽자 牧隱 李穡이 그의 碑銘을 지었다. 북한산성을 축성(1711년)한 후 摠攝僧 聖能이 보우의 遺址에 太古寺를 창건하였는데, 총 131칸으로 그 이름을 태고사라 하였다.
- ② 『萬機要覽』(1808) 「군정편」 3 摠戎廳 北漢山城, 〈設置沿革〉
太古寺는 太古臺 아래에 있다. 136칸이다.
- ③ 『東國輿地備攷』 제2편 漢城府
북한 삼각산 登岸峯 太古臺 아래에 있다. 고려의 중 普愚가 늘 이 절의 동쪽 봉우리에 살았으며 太古라고 편액했다. 136칸이다.
- ④ 『韓國寺刹全書』下 ; 『退耕堂全書』 권3
태고사는 경기도 양주 북한산에 있는데 고려 때 보우국사가 창건하였다.³⁾

이상의 기록을 통해보면 태고사는 북한산 登岸峯 太古臺 아래에 위치하고, 고려시대에 태고 보우국사가 중흥사 왼쪽 봉우리에 터를 잡아 ‘太古庵’이라 편액하고 1341년 창건하였다. 이것이 훗날 태고사로 발전하게 된다. 이후 태고사는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및 여러차례 외세의 침입으로 寺勢도 부침을 격게된다. 그러다가 조선후기 북한산성을 축성(1711년)한 후 摠攝僧 聖能이 보우의 遺址에 태고사를 창건하였는데, 총 131칸의 큰 규모였다. 그 후 태고사는 6·25로 인해 잿더미가 되어 절터만 남았던 것을 靑岩스님에 의해 1964년 중창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3) 권상로, 『韓國寺刹全書』下 (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79), 476-477.



<그림 2> 東國輿圖 ‘太古寺’ 부분, 규장각 소장

태고사가 위치한 삼각산은 빼어난 산수를 자랑하는데 이로 인하여 조선시대 문인들이 이곳에 소재한 사찰들을 제영시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⁴⁾ 이러한 사찰 제영시 가운데 태고사와 관련된 시문들도 여러 편 전하고 있다.

다음 표는 태고사와 관련된 시문을 남긴 인물들과 그 작품명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태고사와 관련된 시문

연번	저자	시문제목	출전
1	姜浚欽	『至太古寺 … 余與李學士轉向清潭』	『三溟詩集』
2	姜晉奎	『太古寺』	『櫟菴遺稿』
3	權濟應	『太古寺』	『翠亭遺稿』
4	金龜柱	『登太古寺感懷』	『可庵遺稿』
		『遊北漢記』 庚辰	『可庵遺稿』
5	金道洙	『太古寺』	『春洲遺稿』
		『太古寺 次金潤甫韻』	

4) 강혜선, “三角山 일대의 寺刹과 漢詩,” 『韓國漢詩研究』 제5집(1997), 6-7.

연번	저자	시문제목	출전
6	金相日	「訪太古寺」	『一广遺稿』
7	金在燦	「太古寺」	『西鷄文集』
8	金祖淳	「太古寺」	『楓臯集』
9	朴允默	「午過太古寺」	『存齋集』
		「北漢經書板重修歌」并小序	『存齋集』
		「三經四書重修板 … 備山中故事」	
		「宿太古寺」	
10	范慶文	「太古寺」	『儉巖山人詩集』
11	宋來熙	「宿太古寺 拈唐人韻」二首	『錦谷先生文集』
12	宋煥箕	「太古寺」	『性潭先生集』
13	吳 瑗	「仲秋 與國寶兄 … 同宿太古寺 朝起次岸翁韻」	『月谷集』
		「太古寺」	『月谷集』
14	李德懋	「宿太古寺」	『靑莊館全書』
		「同南子休復秀 … 宿太古寺 朝向靑霞洞門」	『靑莊館全書』
		「携李仲五時福 循三清洞 … 既夕 暫憇太古亭」	
		「記遊北漢」	『靑莊館全書』
15	李佐薰	「太古寺碑閣」	『煙巖詩集』
16	李憲洛	「再宿太古寺」	『藥南先生文集』
17	張 混	「經書板本重修行」	『而已广集』
18	蔡濟恭	「太古寺」	『樊巖先生集』

태고사와 관련된 시문을 남긴 주요 인물들로는 蔡濟恭(1720~1799), 李德懋(1741~1793), 張混(1759~1828), 金祖淳(1765~1832), 朴允默(1771~1849) 등이 있다. 이들이 남긴 시문의 내용은 대개 삼각산 일대의 승경지를 노닐다가 태고사를 지나가며 그곳의 풍경을 읊은 것이 대부분 이다.

吳瑗(1700~1740)과 이덕무가 남긴 두 편의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말에서 내려 선문에 드니 풍경소리 청아하고,
표연히 樓竹杖 짚고 가벼이 산길 오르네.
여러 골짜기들 안개와 서리에 가을 빛 깨끗하고,
온갖 산봉우리 사이에 단풍나무와 참나무고, 밤기운은 맑디 맑네.⁵⁾

단풍나무 삼나무 行宮을 가렸는데,
중의 암자 또 있어라 몇 곳이 같으나.
처마 끝에 이슬 듣고 북두성 가까우니,
경쇠 소리 아스라이 석담 속에 떨어지네.⁶⁾

오원의 시는 저녁 무렵 태고사에 오르면서 가을 날 산사의 정경을 담담하게 읊은 것이고, 이덕무의 시는 태고사에서 하룻밤 지내며 지은 것으로 오원의 시와 마찬가지로 가을날 산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두편의 시는 모두 태고사의 풍경과 그 속에서 느끼는 고즈넉한 정취를 꾸밈없이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태고사와 관련하여 李佐薰은 ‘태고사비각’을, 그리고 장흔과 박윤묵은 태고사에 수장된 책판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들의 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2 유물

현재 태고사 경내에는 대웅보전, 요사채, 산신각 등과 원증국사탑비(보물 611호)와 원증국사탑(보물 749호) 그리고 조선말기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부도 3기⁷⁾가 있다.

5) 吳琰, 『太古寺』, 『月谷集』 권4.

6) 李德懋, 『宿太古寺』, 『靑莊館全書』 제1권.

7) 경내 산신각 좌측 아래에 조선말기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부도 3기가 나란히 있는데, 그 높이는 98cm, 둘레가 250cm로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기단부를 만들고 그 위에 탑신부를 씌우고 문양을 새겼다.

2.2.1 圓證國師塔碑

태고사 대웅보전 우측에는 자리하고 있는 원증국사탑비는 보물 제611호로 태고사를 창건한 태고 보우의 탑비로 본래 이름은 ‘寶月昇公’이다. 이 탑비는 1385년(우왕 11)에 세워졌고, 1761년(영조 37) 영조의 명에 의하여 비각을 지어 덮었다.⁸⁾ 원증국사탑비의 크기는 전체 높이 342cm, 비신 높이 227cm, 옥개석 높이 55cm로 지대석, 귀부, 비신, 옥개석 등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문은 당대의 문장가 李穡(1328~1396)이 짓고 글씨는 權鑄가 해서체로 썼다. 비신 상단에는 篆書體로 ‘圓證國師塔銘’이 쓰여 있고, 그 비문의 내용은 태고 보우스님의 출생부터 입적까지의 과정과 당시 고려의 사회·문화적 흐름의 일면이 적혀 있으며 탑비 뒷면에 제자들의 직함과 이름이 陰記되어 있다.

이 원증국사탑비와 관련하여 烟巖 李佐薰(1753~1770)⁹⁾은 『太古寺碑閣』이라는 제목아래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나그네가 태고암에 도착해보니, 조각돌이 폐허에 서 있구나.
중이 푸른 이끼 벗기어내자, 이 비에 목은 선생 자리해 있네.
풍상이 옛 비각에 모여 있으나, 필력은 하늘 땅을 버티고 있네.
비문 글씨는 자획이 들쭉날쭉하고, 龜趺와 螭首는 기이하고 신비함 본받았네.
고인 남기고 간 자취에 감격이 되어, 뚫어 앉아 읽으며 心香을 불사르네.
즐비하게 깔려 있는 寺門의 비각을, 지나가는 과객은 돌아보지를 않네.¹⁰⁾

이좌훈이 남긴 한시를 통해 조선후기 태고사와 원증국사탑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태고사는 사세가 기울어졌는지 아니면 관리를 안 하여서 그런지 원증국사탑비가 폐허에 이끼가 잔뜩 낀 채 덩그러니 서 있다고 말하고 있다.

8) 李德懋, 『記遊北漢』, 『靑莊館全書』 제3권.

9) 이좌훈은 18세기 중반을 살다간 인물로 자가 國輔, 호는 烟巖으로 탁월한 시재를 갖쳤으나 18세에 요절한 시인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영남대학교에 목판본 『烟巖遺稿』가 소장되어 있다.

10) 『煙巖詩集』 규장각 소장.



<그림 3> 圓證國師塔碑



<그림 4> 圓證國師塔

2.2.2 圓證國師塔

원증국사탑은 태고 보우국사의 부도로서 보물 제74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탑이 정확하게 언제 건립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1385년 원증국사탑비가 세워진 이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탑의 형태를 보면 석단을 넓게 만들어 탑전을 만들고, 그 중앙에 다시 네모꼴의 구획을 마련하고 그 위에 탑을 세웠다. 탑은 세부분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도의 형태로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이루어졌고, 기단부도 또한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어져 있다. 하대석은 네모진 형태로 위에 伏蓮이 조각되어 있으며, 중대석은 팔각형으로 각 면에는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상대석은 하대석과 대칭으로 仰蓮이 조각되었고, 그 위에 둥그스런 石鐘形의 탑신이 반혀져 있다. 옥개석은 팔각이며 추녀가 수평에 가깝고 낙수면도 기울기가 매우 완만하다. 옥개석 위 상륜부는 寶輪, 寶蓋, 寶珠의 차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개 위 맨 꼭대기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는 받침돌이 하나 놓여

있고, 다시 그 위에 연꽃무늬가 있는 네모난 돌이 올려져 있다. 부도로서는 그 규모가 큰 편이지만 각각의 구성이 잘 어울려져 있어 안정감이 있고 각부의 세부 조각이 섬세하다.

3. 태고사 수장 책판

『北漢誌』와 『鏤板考』 그리고 장흔과 박윤묵의 문집 등에서 태고사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태고사 수장 책판¹¹⁾들인데, 다음은 그 기록이다.

- ① 『北漢誌』: 物力을 갖춰 『四書三經』具諺解・『少微通鑑』・『十九史略』・『唐詩品彙』・『古文百選』・『喪禮備要』・『剪燈新話』・『三韻通考』・『千字文』・『朱子筆』 등 모두 5,700판을 판각함.¹²⁾
- ② 徐有桀, 『鏤板考』: 북한산에 태고사를 창건하고 『三經四書大全』・『通鑑節要』・『唐詩品彙』・『喪禮備要』 등의 책을 목판에 새겨 수장함.
- ③ 『萬機要覽』: 經書・通史・古文・唐詩의 판목을 저장함.¹³⁾
- ④ 『東國輿地備攷』: 經書・通史・唐詩 등의 판을 저장함.¹⁴⁾
- ⑤ 張混, 태고사에 목판이 수장되어 있음.¹⁵⁾
- ⑥ 朴允墨, 북한 태고사에 삼경사서 판본이 수장되어 있음.¹⁶⁾

이상의 내용을 볼 때 태고사에는 經書類와 通史類, 古文, 唐詩 등의 책판을 수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북한지』와 『만기요람』 그리고 『동국여지비고』 등에는 태고사에 수장된 책판 명단을 언급 하고 있는데, 이 목판의 구체적인 책판명과 그 수량 및 책판의 상태가

11) 이외에 태고사 수장 책판 관련 자료로 『충용정사례』의 「북한태고사소재책판수효」, 『북한태고사소재책판구별성책』, 『各道冊板目錄』(2종, [1778, 1840]) 등이 있다.

12) 聖能 編, 「太古寺」條, 『北漢誌』(1745).

13) 徐榮輔・沈象奎 編, 「군정편」 3 摠戎廳 北漢山城, <設置沿革>, 『萬機要覽』(1808).

14) 『東國輿地備攷』 권2 「漢城府」.

15) 張混, 「經書板本重修行」, 『而已廣集』 권2.

16) 朴允默, 「北漢經書板重修歌」并小序, 『存齋集』 권5.

장서각에 소장된 『충용청사례』의¹⁷⁾ 『북한태고사소재책판수효』와 『북한태고사소재책판구별성책』 그리고 徐有渠(1764~1845) 등이 정조의 명으로 1796년(정조 20)에 편찬한 전국 책판해제목록인 『누판고』와 1840년경에 작성된 규장각 소장 『各道冊板目錄』 등에¹⁸⁾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¹⁹⁾

한편 『일성록』과 『내각일력』에는 태고사 책판과 관련하여 5건의 기사가 보이고 있는데, 대개 ‘北漢板’ 또는 ‘北漢山城 經書板本’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사료 외에도 조선 후기 문집인 장혼의 『而已廣集』과 박윤묵의 『存齋集』 등에서는 태고사 경서판본을 重修할 당시 작업에 참여하고 그 감회를 漢詩로 남겨 두었다.

3.1 사료와 문헌의 기록

사료 가운데 태고사 수장 책판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내각일력』이다. 『내각일력』에는 모두 4건의 기사(1781년 3월 21일 · 1790년 2월 24일 · 1816년 8월 29일 · 1821년 1월 20일 條)가 보인다.

먼저 『내각일력』 ‘1781년(정조 5) 3월 21일 條’ 기사에서 ‘講製할 때에 사용하

17) 『摠戎廳事例』는 충용청의 조직과 운영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편찬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본문 중에 대원군 집권기에 복설된 三軍府에 대한 기사나 戶稅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것을 보아 대체로 19세기 중 · 후반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는 『충용청사례』는 여타 군문의 사례에 비하여 각종 재정운용이나 지출관계 규정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조달이나 국가재정 · 수취체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8) 규장각 소장 『各道冊板目錄』은 ‘鄭亨愚 · 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 上 · 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5)’를 참조하였다.

19) 연세대 소장 『各道冊板目錄』(1778년 경에 편찬)과 서유구의 『林園十六志』, 『怡雲志』 7, 附<京外鑲板>에도 태고사에 수장된 책판 기록이 있다. 서유구의 『林園十六志』에 나오는 태고사 수장 책판에 대한 기록은 『鑲板考』(1796년)와 『林園十六志』(1835년)의 편찬시기를 고려해 볼 때, 서유구가 『鑲板考』에서 京外에 수장되어 있는 책판의 기록만을 뽑아 『林園十六志』에 抄錄한 것으로 보인다. 『林園十六志』 초록된 태고사 수장 책판은 『鑲板考』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연세대 소장 『各道冊板目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北漢」條: 論語大全, 論語大全諺解, 孟子大全, 詩傳大全, 詩傳大全諺解, 書傳大全(具諺解), 通鑑, 史略, 古文百選, 唐詩品彙, 增補韻考, 兵學指南, 喪禮備要, 剪燈新話, 北漢誌.

는 경서와 試冊과 講冊은 월 초에 이미 호조에서 경서 3건과 종이, 물력을 공급받아 외각에서 北漢板을 인쇄하게 하여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하여 태고사에 수장되어 있는 經書 책판을 이용하여 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일성록』의 ‘正祖 13년 己酉(1789, 乾隆 54), 4월 2일(戊子) 條’의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태고사 수장 책판을 언급하고 있다.

수어사 金鍾秀(1728~1799)가 대답하기를,
“북한산성에는 일찍이 三經과 四書의 판본이 있었는데, 4~50년 전에 性能이 開刊을 주관하면서 空名帖을 청해서 얻어 이를 팔아 工役의 비용으로 삼아 『唐詩品彙』 등과 같은 책을 모두 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본이 근래 대부분 손상되어 중들이 修改할 계획을 하는데, 약간의 공명첩을 얻어 그 비용에 보태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해아려 주어 修補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자,
좌상 李性源(1725~1790)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원하는 대로 수보하면 비용은 적게 들고 일은 편리할 것입니다.” 하여,
내가(정조) 이르기를,
“손상된 冊板의 수효와 들어갈 物力의 양은 摠戎廳에서 자세히 기록해서 오라.”
하였다.

위 기사를 보면, 성능이 개간했던 책판들이 시간이 흘러 대부분 손상됨에 따라 스님들이 이를 修改하려 하자 정조는 摠戎廳에 손상된 책판의 수효와 修補에 소모되는 물력의 양을 조사하도록 명을 내린다. 이에 총융청에서는 태고사 책판의 수량과 파손된 책판의 수효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현재 『총융청사례』의 「북한태고사소재책판수효」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위 『일성록』의 기사에 의거하면 『총융청사례』의 「북한태고사소재책판수효」는 1789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내각일력』 ‘1790년(정조 14) 2월 24일 條’ 기사를 보면, 북한산성에 있는 經書 2건과 韻書 5건을 각각 인쇄하고 내각에 명하여 매 권마다 御寶를 찍어 尊經閣에 보관하게 하였다.²⁰⁾

20) 尊經閣의 藏書에 대해서는 李春熙, “尊經閣藏書에 관한 一考察,”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집(1972)에 정리되어 있다.

19세기에 들어서도 태고사 수장 책판에 대한 언급이 『내각일력』 ‘1816년(순조 16) 8월 29일 條’와 ‘1821년(순조 21) 1월 20일 條’에 보인다.

① 8월 29일 條: 徐俊輔(1770~1856)가 아뢰기를, “... 북한산성에 보관된 경서 판본은 오랜 세월 속에 마모되고 글자들이 훼손된 상태라 修改를 거친 뒤에 인쇄를 해야 합니다. 수개할 때 드는 비용은 달리 변통할 방법은 없고 校書館의 紙契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사용될 수량을 헤아려서 비용을 換作하는 것으로 수개의 방법을 삼는 것이 좋을 듯하여 감히 진달합니다.” 하니, 상(순조)께서 옳다고 여기셨다.

② 1월 20일 條: 徐憲淳(1793~1857)이 아뢰기를, “북한산성에 보관된 경서판을 수개하는 일은 간간이 始役을 하였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판본이 거의 대부분 썩고 훼손되어 潛役들이 修改의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요되는 비용이 새로 간행하는 비용과 같아 수고는 배로 하고 공효는 반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 새로 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 다만 『大全』의 경우 甲寅年에 새로 간행한 주자판(甲寅新印鑄字板)으로 번각하였고,²¹⁾ 諺解本의 경우 西庫와 각처에 있는 것들 중에 비록 鑄字本이 있지만 7월의 판본이 모두 형식이 다릅니다. 오직 文獻閣에 소장된 것은 대조해보지 않았는데 품의를 마친 후에 대조해 볼 것입니다. 만약 문헌각에 소장된 판본이 번각에 합당하다면 여러 질 가운데 한 본을 쓸 것으로 삼아 完役을 기다리고, 다시 한 본을 인쇄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감히 우러러 진달합니다. 그러나 서책이 새로 간행된 후에 책을 바치는 예를 따를 수 있는 것이니, 지금 품의하여 결정한 뒤에야 지휘에 앞서 종이를 갖추어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역』은 지금 이미 준역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경서들도 역시 차례대로 진행하여 간행을 마치면 책을 올리겠습니다. 질 수는 몇 건으로 정하시겠습니까?” 상(순조)께서 말씀하셨다. “이대로 하라, 진상할 책은 『대전』 20건, 언해 10건을 인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다.

이상의 기록으로 볼 때 19세기에 들어서 태고사 수장 책판들은 修改를 해야 될 정도로 마모와 훼손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인물인 장훈과 박윤묵의 문집인 『이이엄집』과 『존재집』에 경서판본의 重修에 대한 시문을 남기고 있어서 참고가 된다. 장훈과 박윤묵이 남긴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21) 1820년에 번각된 庚辰新刊 內閣藏板으로 추정된다.

① 목판은 태고사에 남아있건만, 오랜세월 비바람에 마모되었네.
바싹 마른 먹에 글자는 이지러졌고, 썩어 떨어져나갔으며 절반은 또 좀 먹었
네. ...
충용청에 局을 열어 편리하고 가까우니, 성문과의 거리가 6,000弓이라네.
도성 밖의 각수 모집하니, 3~40명의 각수가 몸을 굽혀 왔네.²²⁾

② 종이를 접고 묵으로 베끼는 일 날마다 이어지더니, 세월이 오래고 글자는
이지러져 목판이 민둥머리신세라.
偏傍을 찾아보니 열에 아홉은 떨어져 나갔으니, 비유컨대 달이 숨기고 구름이
덮어버린 것과 같네. ...
정말한 공인과 장인이 50 명이요, 최대로 모은 비용이 7천 銅이라네.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간추려 다 갖추었으니, 마침내 충용청에 局을 열었
다네.²³⁾

위에 제시된 장훈과 박윤묵 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는 태고사 수장 책판이 오랜 세월에 마모가 되고 훼손이 심하여 판면의 글자를 알아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이에 충용청에 국을 설치하여 중수작업을 하는데, 이 당시 장훈은 교정작업에 참여를 하였고, 박윤묵은 중수작업에 참여를 하게 된다. 중수작업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보면, 장인과 각수가 50여명이 동원 되었고 비용이 7천 銅이라 말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수작업에 참여한 인물들을 박윤묵의 『北漢經書板重修歌』并小序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直學士 李存秀(1772~1829)가 修改의 임무를 담당하였고 直閣 鄭基善(1784~1839)과 待敎 徐憲淳이 감독을 맡았다.

한편 박윤묵은 중수작업을 끝마치자 ‘사서삼경 중수판을 직접 옮겨 북한산성 태고사에 보관하고 시를 짓고 기록하여 산 중의 옛 일을 갖추다(三經四書重修板躬領還藏于北漢太古寺 詩以識之 備山中故事).’ 라는 시를 한 편 남겨 그 감회를 토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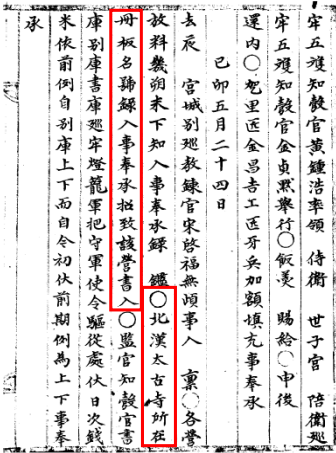
22) 張混, 『經書板本重修行』, 『而已廣集』 권2.

23) 朴允默, 『北漢經書板重修歌』并小序, 『存齋集』 권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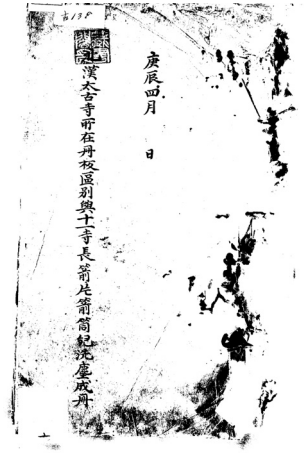
귀한관을 보배처럼 보관하는 일이라,
추운 날씨에도 감히 사양할 수 없네.
힘들게 어깨에 메고 오랜 날을 옮겨,
혼도 놀라고 걸음마저 위태롭다네.
정성껏 받든 승려는 잘 보존할 것이오,
살펴주시는 부처 역시 자애롭다네.
오늘 아침 공사가 비로소 끝났으니,
기록하고 시 한 수 새로 지어 남기네.²⁴⁾

사료 이외에 태고사 수장 책판과 관련해서 참고가 되는 자료로 장서각 소장 『북한 태고사소재책판구별성책』이 있다. 이 자료에는 태고사 수장 책판의 수량이 작성되어 있는데, 그 작성시기는 표지에 墨書된 ‘庚辰四月 日’을 통해 추정을 할 수 있다. 표지의 庚辰年을 추정하기 위해 『북한태고사소재책판구별성책』에 나오는 책판 서명들의 간행시기를 확인해본 결과 『御製小學指南』이 1766년(『御製小學指南序』, 卽阡四十二年七十三歲丙戌春正月人日序)에 활자본으로 간행이 되었다. 따라서 1766년 이후 庚辰年을 따져보면 1820년(純祖 20)과 1880년(高宗 17) 중 한 해가 될 것이다. 『북한태고사소재책판구별성책』의 좀 더 정확한 작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장서각에 소장된 『知穀官廳日記』²⁵⁾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지 서명 『지구관청일기』 6 ‘己卯(1879)五月二十四日’條를 보면 ‘북한산 태고사 소재 책판명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 該營의 서고에 불러들어 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북한태고사소재책판구별성책』은 1879년에서 188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좁혀 볼 수 있다.

24) 朴允默, 『三經四書重修板 躬領還藏于北漢太古寺 詩以識之 備山中故事』, 『存齋集』 권5.
25) 『知穀官廳日記』는 1874년(고종 11) 5월 3일부터 1882년 6월 9일까지의 武衛所의 일기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전자도서관에서 입력한 서지사항을 그대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線裝 不分卷 9冊: 四周單邊 半郭 19.6×22.4cm, 烏絲欄, 半郭 10行 22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33.6×22.4cm.



<그림 5> 『知穀官廳日記』 6
장서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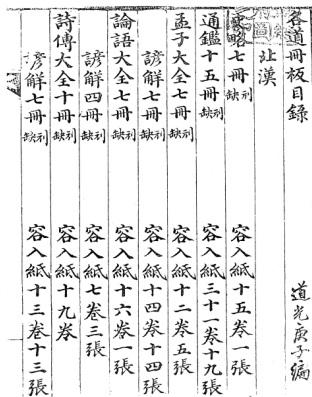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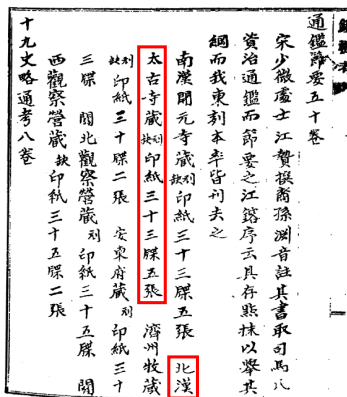


<그림 6> 『북한태고사소재책판구별성책』
장서각 소장

3.2 책판목록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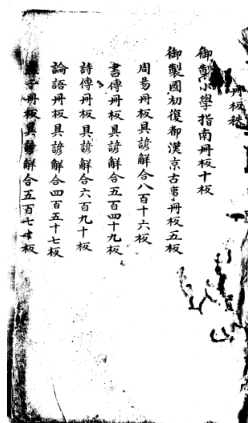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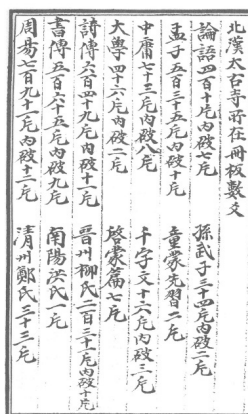
현재 전하고 있는 책판목록을 통해 태고사 수장 책판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누판고』와 연세대 및 규장각에 소장된 『각도책판목록』 등이 있다. 그리고 책판목록은 아니지만 앞에서 살펴본 『충용청사례』의 「북한태고사 소재책판수효」와 『북한태고사소재책판구별성책』에도 책판명, 수량, 상태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 자료에 나타난 태고사 수장 책판에 대한 기술 방법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누판고』에서는 각 책판의 서명을 쓰고 그 아래에 권수 표시를 하였으며, 다음 행부터는 편저자의 성명과 약전, 그리고 부분적으로 서·발문 및 내용소개, 판의 소장처와 刊缺여부, 印紙數(○○牒 ○○張)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방법은 규장각 소장 『각도책판목록』의 ‘北漢’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각 책판의 서명을 쓴 다음에 책수와 책판의 상태를 ‘刊缺’, ‘○○缺’, ‘完’으로 표시하고 그 책판을 인출하는데 소모되는 종이의 양을 ‘○○卷 ○○張’으로 표시해 놓았다.



<그림 7> 『누판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8> 『각도책판목록』 규장각 소장

앞서 언급한 『총융청사례』의 『북한태고사소재책판수효』에서는 태고사의 책판에 대하여 책판의 수효와 파손된 수량을 ‘○○片內破○○片’으로 작성해 두었고, 『북한태고사소재책판구별성책』에서는 태고사 소장 책판의 수량만이 기록되어 있다.



<그림 9> 『총융청사례』
『북한태고사소재책판수효』

<그림 10>
『북한태고사소재책판구별성책』

다음 표는 위 자료들에 나오는 태고사 소장 책판에 대한 수량과 책판의 상태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태고사 소장 책판의 수량 및 상태

『총융청사례』 『북한태고사소재책판수호』			『북한태고사소재책판구별성책』		
번호	책판명	책판 수량 및 상태	번호	책판명	책판 수량
1	論語	410片內 破 7片	1	御製小學指南	10板
2	孟子	535片內 破 10片	2	御製國初復都漢京古事	5板
3	中庸	73片內 破 8片	3	周易 具諺解	816板
4	大學	46片內 破 2片	4	書傳 具諺解	549板
5	詩傳	649片內 破 11片	5	詩傳 具諺解	690板
6	書傳	565片內 破 9片	6	論語 具諺解	457板
7	周易	791片內 破 12片	7	孟子 具諺解	570板
8	孫武子	34片內 破 2片	8	中庸 具諺解	89板
9	童蒙先習	2片	9	大學 具諺解	52板
10	千字文	16片內 破 3片	10	通鑑	649板
11	啓蒙篇	7片	11	史略	296板
12	晉州柳氏	231片內 破 10片	12	唐詩品彙	707板
13	南陽洪氏	1片	13	古文百選	122板
14	淸州鄭氏	33片	14	[剪]燈新話	90板
15	通鑑	609片內 破 8片	15	增韻	48板
16	易五贊 ²⁶⁾	2片	16	喪禮備要	57板
17	小學	11片	17	[孫武]子	36板
18	史略	306片內 破 5片	18	梵音集	260板
19	唐詩	790片內 破 15片	19	北漢誌	16板
20	喪禮備要	60片	20	晉州柳氏世譜	176板
21	古文眞寶	106片	21	咸從世稿	145板
22	剪燈新話	84片內 破2片 ²⁷⁾	22	德水李氏世稿	51板
23	梵音集	243片內 破 4片	23	淸州慶氏族譜	47板
24	咸從世稿	151片內 破 3片	24	魚氏族譜	48板
25	德水世稿	35片內 破 2片	25	千字文	14板
26	魚氏世譜	23片	26	啓蒙	6板
27	北漢誌	10片 刳破	27	朱先生童蒙須知 ²⁸⁾	4板
총 27종. 5,823片內 破傷123片			총 34종. 5,966板		

26) 易五贊: 정조가 1779년 朱子의 詩文을 간추려 뽑아 『雅頌』 8권 2책으로 엮어 壬辰字로 간행을 하였다. 그중 권8에 ‘易五贊’이 있는 것으로 보아 ‘北漢太古寺所在冊板數爻’의 易

<표 2-1> 태고사 수장 책판의 수량 및 상태

『鏤板考』 내 태고사 수장 책판			규장각 소장 『各道冊板目錄』 ‘北漢’條		
번호	책판명 및 권수	책판상태 및 印紙	번호	책판명 및 수량	책판상태 및 印紙
1	小學指南 2卷	北漢太古寺藏 11張	1	史略 7冊	剝缺, 15卷 1張
2	周易大全 24卷	北漢太古寺藏 28牒	2	通鑑 15冊	剝缺, 31卷 19張
	諺解 9卷	" 11牒10張	3	孟子大全 7冊	剝缺, 12卷 5張
3	書傳大全 10卷	" 28牒10張		諺解 7冊	剝缺, 14卷 14張
	諺解 5卷	" 11牒15張	4	論語大全 7冊	剝缺, 16卷 1張
4	詩傳大全 20卷	" 20牒 6張		諺解 4冊	剝缺, 7卷 3張
	諺解 20卷	" 16牒 2張	5	詩傳大全 10冊	剝缺, 19卷
5	大學大全 1卷	" 1牒17張		諺解 7冊	剝缺, 13卷 13張
	諺解 1卷	" 17張	6	書傳大全 10冊	剝缺, 17卷 5張
6	論語大全 20卷	" 17牒 8張		諺解 5冊	剝缺, 10卷 2張
	諺解 4卷	" 7牒10張	7	中庸大全 1冊	剝缺, 3卷 15張
7	孟子大全 14卷	" 14牒17張		諺解 1冊	完, 1卷 17張
	諺解 14卷	" 15牒10張	8	大學大全 1冊	剝缺, 2卷
8	中庸大全 1卷	北漢太古寺藏 3牒 5張		諺解 1冊	剝缺, 14張
	諺解 1卷	" 剝 1牒17張	9	周易大全 13冊	剝缺, 27卷 8張
9	喪禮備要 2卷	" 剝 3牒		諺解 5冊	剝缺, 9卷 17張
10	增補三韻通考 1卷	" 剝 2牒13張	10	唐詩品彙 20冊	66張缺, 36卷 9張
11	通鑑節要 50卷	" 剝缺 33牒 5張	11	古文百選 3冊	剝缺, 6卷 13張
12	十九史略通考 8卷	" 剝 15牒10張	12	剪燈新話 2冊	剝缺, 4卷 3張
13	北漢誌 1卷	北漢太古寺藏 12張	13	喪禮備要 1冊	剝缺, 2卷 7張
14	啓蒙編 1卷	" 7牒	14	北漢誌 1冊	剝缺, 12張
15	千字文 1卷	" 18張	15	啓蒙篇 1冊	完, 9張
16	唐詩品彙 90卷	" 40牒	16	新增韻考 1冊	剝缺, 2卷 6張
17	古文百選 3卷	" 剝 6牒 7張	17	千字文 1冊	5張缺, 16張
총: 24종, 305권 종이 사용량: 278牒 220張			18	梵音集 3冊	6張缺, 5卷 4張
			19	八陽經 1冊	1張缺, 15張
			26종, 총 책수: 135冊 종이 사용량: 174卷 247張		

五贊 2片은 『雅頌』 권8의 「易五贊」의 책판으로 추정된다. 『雅頌』은 1799년 목판본으로도 간행이 되었다.

- 27) 『剪燈新話』 84片內 破 2片: 김영진 교수는 “朝鮮 刊 『剪燈新話句解』 諸本 研究 (1),” 『어문논집』 65(2012), 301, 주19)에서 ‘84편을 84판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서발이 붙은 상권(88판)으로 추정하고 하권의 책판은 북한산 태고사가 아닌 다른 곳에 나뉘 판각, 보관

이상의 표에 나타난 서명들과 연세대소장 『각도책판목록』 『北漢』條에 기록된 책판목록과 종합해 볼 때 태고사에는 40여종의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는데, 각 자료에 나오는 책판을 비교하고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태고사 소장 책판 비교

『北漢太古寺所在冊板區別』 御製小學指南 御製國初復都漢京古事 四書三經/具諺解 通鑑, 史略 千字文, 啓蒙, 朱先生童蒙須知 唐詩品彙, 古文百選 喪禮備要, [剪]燈新話, 增韻 [孫武]子, 梵音集, 北漢誌 晉州柳氏世譜, 咸從世稿 德水李氏世稿, 淸州慶氏族譜	『北漢誌』 四書三經/具諺解 少微通鑑, 十九史略 唐詩品彙, 古文百選 喪禮備要 剪燈新話 三韻通考 千字文 朱子筆	
규장각 소장 『各道冊板目錄』 史略, 通鑑 四書三經/具諺解 唐詩品彙, 古文百選 剪燈新話, 喪禮備要 啓蒙篇, 千字文 新增韻考 梵音集, 八陽經 北漢誌	論語 / 諺 孟子 詩經 / 諺 書經 / 諺 通鑑, 史略 唐詩品彙 喪禮備要	연세대 소장 『各道冊板目錄』 古文百選 增補韻考 兵學指南 剪燈新話 北漢誌
『鑲板考』 小學指南 四書三經/具諺解 通鑑節要, 十九史略通考 喪禮備要, 增補三韻通考 啓蒙編, 千字文 唐詩品彙, 古文百選 北漢誌	『北漢太古寺所在冊板數爻』 四書三經 通鑑, 史略 易五贊, 小學 童蒙先習, 千字文, 啓蒙篇 唐詩, 古文眞寶, 喪禮備要, 剪燈新話 孫武子 晉州柳氏, 南陽洪氏, 淸州鄭氏 梵音集, 咸從世稿, 德水世稿, 魚氏世譜, 北漢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 28) 朱先生童蒙須知는 주자가 저술한 『童蒙須知』를 말한다. 『北漢誌』에 기록된 ‘朱子筆’은 당시 작성자가 주자와 관련된 책판에 대하여 略稱한 것으로 보이는데, 8종의 태고사 소장 책판 자료 가운데 주자와 연관된 책판은 『易五贊』과 『童蒙須知』뿐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北漢誌』에서 언급하고 있는 ‘朱子筆’이 『易五贊』이나 『童蒙須知』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책판을 지칭하는지 현재 알 수가 없다.

<표 4> 태고사 소장 책판 분류

번호	분류(종수)	서명
1	御製類(2종)	御製小學指南, 御製國初復都漢京古事
2	經書類(14종)	三經四書大全, 三經四書大全 諺解
3	歷史類(2종)	史略, 通鑑
4	初學教材類(5종)	啓蒙篇, 童蒙先習, 小學, 朱先生童蒙須知, 千字文
5	族譜類(6종)	南陽洪氏, 德水世稿(德水李氏世稿), 晉州柳氏(晉州柳氏世譜), 淸州慶氏族譜, 淸州鄭氏, 咸從世稿(咸從魚氏世譜)
6	詩文選集類(4종)	古文白選, 古文眞寶, 唐詩品彙(唐詩), 易五贊
7	兵書類(1종)	兵學指南, 孫武子
8	喪禮類(1종)	喪禮備要
9	小說類(1종)	剪燈新話
10	佛經類(2종)	梵音集, 八陽經
11	地理類(1종)	北漢誌
12	韻學類(3종)	新增韻考, 增補三韻通考, 增韻

3.3 태고사 소장 책판 인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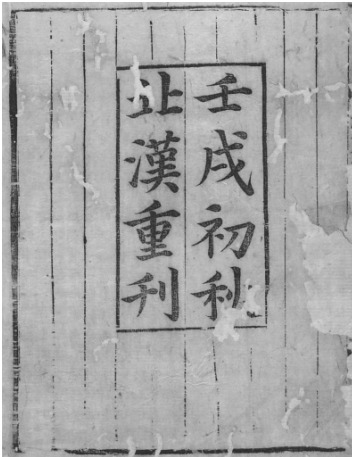
현재 국내 및 해외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태고사 소장 책판을 이용하여 인출한 판본으로는 重刊本 『論語集註大全』과 『中庸章句大全』 그리고 『詩傳大全』, 『中庸章句大全』, 『北漢誌』, 『唐詩品彙』 등이 있다.

(1) 重刊本 『論語集註大全』은 20권 7책으로 연세대학교에 소장²⁹⁾되어 있다. 그 刊記(癸亥五月 北漢重刊)와 장훈(1759~1828) 및 박윤묵(1771~1849)의 시문인 「經書板本重修行」과 「北漢經書板重修歌」가 지어진 시기(1819년)와 그들의 생몰년을 미루어 볼 때 개해년은 1803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2) 重刊本 『中庸章句大全』은 1책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청구기호: 奎中 683, 奎中685, 奎中 2477)되어 전하고 있는데, 이 책도 또한 간기(壬戌初秋

29) 청구기호: 고서(한상역) 181.4 논어 대-판-북-1~7

北漢重刊)와 장흔 및 박윤묵이 남긴 시편과 그들의 생몰년으로 볼 때 1802년에 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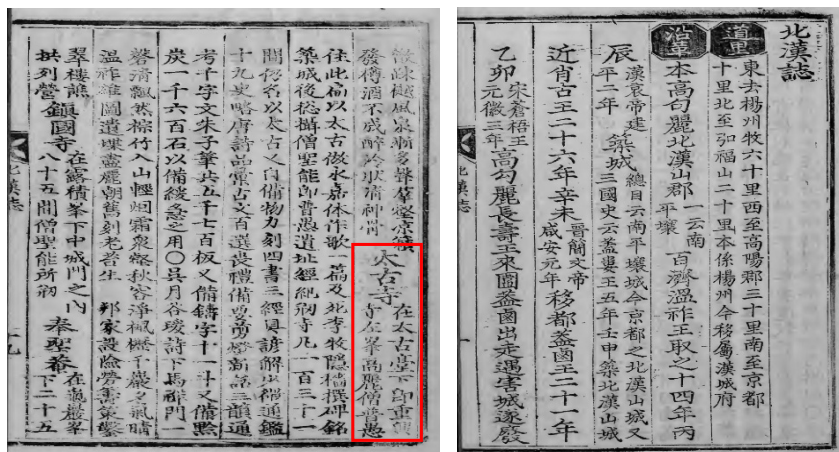
<그림 11> 重刊『中庸章句大全』간기
규장각 소장



<그림 12> 重刊『中庸章句大全』권수제
규장각 소장

(3) 경기대학교와 전주대학교에 소장된 『詩傳大全』(20권 10책)과 국립중앙도서관 및 원광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中庸章句大全』(1책)의 간기가 각각 ‘丙申五月日 北漢城開刊’과 ‘丙申三月日 北漢城開刊’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丙申年은 1716년 또는 1776년으로 추정된다.

(4) 『北漢誌』는 1711년 八道 都摠攝이던 聖能이 北漢山城을 쌓고 지키다가 도총섭의 직책을 瑞胤에게 인계할 때, 산성과 관련된 14조의 일을 초록한 뒤 1745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책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고려대, 영남대 등 국내 여러기관과 미국 UC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아사미문고에 목판본이 소장되어 전하고 있다.



<그림 13> 아사미문고 소장 목판본 『北漢誌』

(5) 『唐詩品彙』: 明나라 高棅(1350~1423)이 편찬한 唐詩選集인데, 당나라 시대 시인 620인의 詩를 시체에 따라 분류를 하였다. 그 분류를 보면 오언고시 24권 1,507수, 칠언고시 13권 605수(附 長短句), 오언절구 8권 526수(附 六言), 칠언절구 10권 836수, 오언률시 15권 1,308수, 오언배율 11권 586수, 칠언률시 9권 499 수(附 排律)로 모두 5,769수가 실려있다. 시체에 따라 분류를 한 다음 시기에 따라 初唐・盛唐・中唐・晚唐으로 구분하였으며, 또 각 시기 詩의 특징을 초당은 正始, 성당은 正宗・大家・名家・羽翼, 중당은 接武, 만당은 正變・餘響・傍流 등으로 나누어 편찬하였다.

藤本幸夫의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는 일본에 현존하는 조선본 고서에 대한 서지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³⁰⁾ 『唐詩品彙』가 면밀히 조사되어 있다.³¹⁾ 그가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集0185, 唐詩品彙九十卷首一卷二十冊’은 木

30)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87-88.

31) 藤本幸夫가 대고사 수장 책판으로 인출된 京都大學 소장본 『당시품회』의 판본을 조사한 서지사항을 볼 때 明末 張恂의 重訂本을 판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版本이고 刊地가 京畿道 北漢太古寺로 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을 요약해서 소개해 본다.

番號 集0185

書名 唐詩品彙九十卷首一卷二十冊

撰者 明高樸編 淸張恂重訂

版種 木版本

刊年 [英祖中葉正祖二十年丙辰(1796)間]刊 [純祖憲宗間]後印

刊地 京畿道北漢太古寺

裝幀 原表紙 五針眼釘法 藍絲

寸法 27.4×17.4cm

紙質 楮紙

版式 上內向黑魚尾 下橫單線 魚尾上右側 ‘唐詩品彙’ 魚尾下 ‘卷之幾 幾’

構成 ① 重訂唐詩品彙序 (8行16字) 張恂

② 唐詩品彙總敘 (8行16字) 洪武二十六年癸酉(1393)春高樸

③ 歷代名公敘論 (10行20字)

④ 引用諸書

⑤ 凡例

⑥ 唐詩品彙總目

⑦ 敘 (8行16字) 洪武二十七年甲戌(1394)仲月王僞

⑧ 五言古詩敘目

⑨ 五言古詩卷之一 (至九十)

序 … 爰自貞觀至天祐通得六百二十人共詩五千七百六十九首分爲九十卷總

題曰唐詩品彙 … 洪武癸酉春新寧高樸謹序

藏書印 - 每冊首 ‘箕三’ (方1.2 陽刻朱印), ‘趙寧/夏印’ (方2.1 陰刻朱印), ‘香雪館’ (2.6×1.3 陰刻朱印) 三顆同一印色同一人印

註記 ㉑ 表紙左肩墨書 ‘唐詩品彙 一(至二十)’ 內框縱은 19.0-20.2cm.

㉒ 卷1 第1張은 四周雙邊이고, 以下는 左右雙邊이다.

㉓ 詩는 五言古詩 · 七言古詩 · 五言絕句 · 七言絕句 · 五言律詩 · 五言排律 · 七言律詩 · 七言排律로 분류하고 5,769首를 90권에 담고 있다.

㉔ 每卷首 第2-3행에 ‘新寧高樸編輯/關中張恂重訂’

㉕ 首題(권수제) 및 尾題(권말제)는 ‘五言古詩卷之幾 唐詩品彙幾’이다.

研覈

- 英祖中葉 正祖20년 丙辰(1796)간에 간행하여, 純祖-憲宗년간에 後印된 것으로 추정.
- 正祖20년 왕명에 의해 편찬된 『鏤板考』에 『唐詩品彙』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이전의 刊本이 명백하며, 또 ‘北漢太古寺藏印紙四十牒’이라 기록되어 있음.
- 다른 간행지가 확인되지 않기에 太古寺 刊本이라 간주해 볼 수 있음.³²⁾
- 舊藏者 趙寧夏는 字가 箕三, 號가 惠人, 諡가 忠文, 豐壤人이며, 摠使 趙秉燮의 아들로 憲宗 11년 乙巳(1845)에 태어나 高宗 21년 甲申(1884)에 被殺 됨.
- 哲宗14년 癸亥(1863) 文科로 급제하여 관직은 御將都統使에 이름.
- 藏書印 3顆는 전부 趙寧夏의 장서인으로 추정.³³⁾
- 본서는 목판본 외에 明宗·宣祖年間本으로 추정되는 갑인자 인본이 있음.

所藏者: 京大 人文 集 I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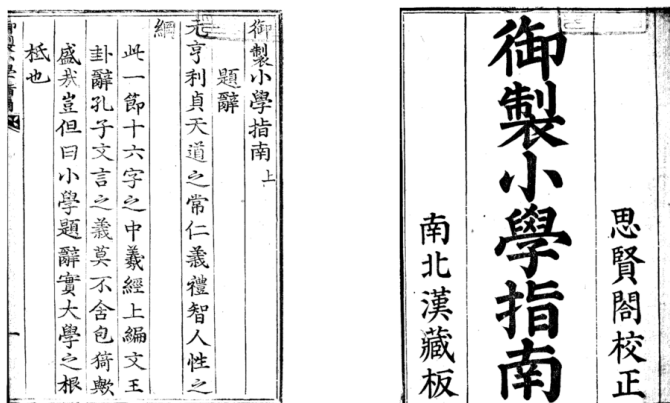
다음 그림은 藤本幸夫의 서지사항 기록을 규장각에 소장된 『당시품회』와 대비해 본 것이다.

32) 鄭亨愚·尹炳泰(1995)에 보이는 『唐詩品彙』의 간행지로 북한(태고사)만 언급되고 있다.
 33) 藏書印 3顆 가운데 ‘香雪館’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직접 보지 못하여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혹시 香雪館이 趙熙龍(1789~1866)이 50대에 쓴 당호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조희룡은 50대에 향설관이라는 당호를 사용하였는데, 밀양시립박물관 소장 <墨梅>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墨梅>, <墨竹>에 향설관 당호가 날인되어 있다. ‘향설관’에 대해서는 차후에 대조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겠다.

藤本幸夫가 기록한 서지사항을 참고하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본 『唐詩品彙』(청구기호, 奎中 2097-v.1-18)와 비교해본 결과 판본의 형태와 구성이 藤本幸夫가 기록한 서지사항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놓고서 규장각에 소장된 『당시품회』가 태고사에 수장된 책판으로 인출한 판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품회』의 제판본 연구에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태고사소재책판구별성책』에 보이는 『御製小學指南』의 책판은 1766년에 戊申字本 2권 1책으로 간행한 것을 저본으로하여 翻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國朝寶鑑』과 조선후기 戚臣인 金龜柱(1740~1786)가 남긴 『立朝日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 ① 『御製小學指南』이 완성되자 교서관에 명을 내려 인쇄하도록 하여 신하들에게 나누어주고,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에 나누어 보내 판목에 아름답게 새겨 길어 전해지게 하라.³⁴⁾
- ② 임금께서 친히 큰 글자로 ‘御製小學指南’이라 쓰시고 그 좌우에 ‘思賢閣校正’과 ‘南北漢藏板’이라 쓰시고는 교서관에 명하여 인쇄하도록 하셨다.³⁵⁾



<그림 15> 『御製小學指南』 권수제와 표제지

34) 『國朝寶鑑』 제66권, 영조조 10, 42년(병술 1766) 條.

35) 金龜柱, 『立朝日記』 丙戌 十一日, 『可庵遺稿』 권28.

『御製小學指南』은 영조가 『소학』의 뜻을 풀이한 것으로, 序와 小識 그리고 上卷, 下卷, 奉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곧, 金華鎮(1728~1803)이 영조의 명을 받아 쓴 御製序와 任琰이 봉고하여 쓴 御製小識를 앞머리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조는 『소학』을 배운 지 61년 만에 세번째 『소학』을 강론하고 그 내용을 엮어 간행하게 한 경위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 상권은 주자의 『小學題辭』의 전문을 10節로 나누어 설명을 붙이고 제사의 내용을 찬양하고 있으며, 하권은 『소학』의 내편과 외편의 각 편마다 그 전체적인 취지와 의의를 설명하고 끝에 외편의 篇題와 序次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책 끝에는 교정에 참여한 14명의 명단과 관직이 부기되어 있다. 현재 목판본은 전하지 않으며 활자본이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 성균관대 존경각,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소장되어 전하고 있다.

4. 맺음말

이상 태고사에 수장된 책판에 대해 여러 문헌기록을 참고하여 책판의 대략적인 종수와 그 수량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중·후반까지 태고사에서 수장하고 있던 책판의 종수와 수량은 약 40여종 5,700여판으로 추정된다.

둘째, 사료와 문헌상에 태고사 소장 책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사료로는 『內閣日曆』, 『日省錄』이 있다. 이들 사료에는 당시 태고사 소장 책판을 이용하여 책을 인출한 사실과 책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책판목록인 『鏤板考』와 규장각에 소장된 『各道冊板目錄』을 비롯해 『北漢太古寺所在冊板數爻』와 『北漢太古寺所在冊板區別成冊』 등을 통하여 태고사에 수장된 책판의 수량 및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태고사 소장 책판으로 인출한 목판본들이 현재 국내와 해외의 각 기관에 소장되어 전하고 있는데, 重刊本 『論語集註大全』과 『中庸章句大全』 그리고

『詩傳大全』, 『中庸章句大全』, 『北漢誌』, 『唐詩品集』 등 6종이 확인되었다.

넷째, 태고사 수장 책판의 종수가 40여종으로 확인된 바, 이를 토대로 하여 차후 태고사 수장 책판의 인출본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추가로 인본을 찾아내어 보완을 하게 되면 북한산 지역의 출판문화와 관련하여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國朝寶鑑』 영조 42년(병술 1766) 條의 기록(남한산성과 북한산성에 나누어 보내 판목에 새겨)으로 볼 때, 남한산성에도 다수의 책판이 수장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洪敬謨(1774~1851)가 편찬한 『重訂南漢誌』 卷5 「鏤版」 條에 약 32종이, 규장각과 연세대소장 『各道冊板目錄』의 ‘南漢’條에 각각 34종과 29종이, 『古冊板有處攷』의 ‘京畿道 廣州郡’條에 21종의 책판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또한 서유구의 『鏤板考』에서도 책판의 소장처를 ‘南漢開元寺藏’으로 표기한 곳이 보인다.³⁶⁾ 이러한 근거 자료를 참고하여 남한산성 내에 수장된 책판의 전체 종수를 추정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인출본을 조사한다면 북한산성 지역의 출판문화와 짝하는 남한산성 지역 출판문화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원전]

『可庵遺稿』.

『國朝寶鑑』.

『南漢誌』.

『鏤板考』.

『萬機要覽』.

『北漢誌』.

36) 자세한 책판명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北漢太古寺所在冊板區別與十一寺長箭片箭筒兒洗塵成冊』(필사본).

『新增東國輿地勝覽』.

『煙巖詩集』.

『月谷集』.

『而已廣集』.

『存齋集』.

『靑莊館全書』.

[단행본]

國防軍史研究所 編. 『御營廳事・例摠戎廳事例・禁衛營事例』. 서울: 國防軍史研究所, 2000.

권상로. 『韓國寺刹全書』 下. 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79.

김연실.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재: 행주얼을 찾아서』.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심경호. 『산문기행: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서울: 이가서, 2007.

張伯偉 編. 『朝鮮時代書目叢刊』 1-9. 北京: 中華書局, 2004.

鄭亨愚, 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録』 上・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5.

포럼・그림과 책 편. 『(포럼・그림과 책) 논문집』. 서울: 화봉문고, 2011.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파주: 글항아리, 2014.

[논문]

강혜선. “삼각산 일대의 사찰과 한시.” 『韓國漢詩研究』 제5집(1997). 5-20.

김남기. “규장각 소장 책판(冊板)의 현황과 가치.” 『문헌과 해석』 통권31호(2005년. 여름). 104-130.

김영진. “朝鮮 刊 『剪燈新話句解』 諸本 研究 (1).” 『어문논집』 Vol.65(2012). 287-314.

김영진. “조선후기 서적 출판과 유통에 관한 일고찰.” 『동양한문학연구』 Vol.30 (2010). 5-28.

안현주. “朝鮮時代 <四書>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7.

이준희. “尊經閣藏書에 관한 一考察.”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1(1972). 15-30.

[부록] 경기도 광주 소재(남한, 개원사) 책판관련 자료

1. 1776년 이전 편찬, 『古冊板有處攷』 ‘京畿道 廣州郡’條

번호	책판명	번호	책판명
1	史略 初卷2卷	12	大學
2	通鑑 15卷	13	小學
3	千字 1卷	14	論語
4	古文後集 以上板舊來並刊	15	孟子
5	御製小學	16	擊蒙要訣
6	御製百行苑	17	書傳
7	闡義昭鑑	18	詩傳
8	澤堂集	19	近思錄
9	周易本義	20	性理吟
10	易傳	21	註解千字 等板在
11	中庸	총 21종	

2. 1778년경 작성, 연세대 소장 『各道冊板目錄』 ‘南漢’條

번호	책판명 및 종이 사용량	번호	책판명 및 종이 사용량
1	論語 7束 10張	9	擊蒙要訣 1束 5張
2	孟子 8束 10張	10	闡義昭鑑 9束 10張
3	中庸 1束 10張	11	千字
4	大學 2束	12	大千字
5	周易本義 9束 10張	13	註解闡子
6	周傳 9束 10張	14	類合
7	書傳 11束 10張 間刊	15	御製百行源
	附錄 2束	16	類苑叢寶
8	詩傳 15束	17	彙語
	附錄 15束 以上奎壁	18	童蒙先習
9	小學 3束 15張	19	新增類合
10	性理吟 1束 10張	20	贈郭將軍韓筆
11	近思錄 3束 17張	21	春種
12	古文後集 9束	22	國朝詩刪
13	澤堂集 33束	총 29종	

3. 1796년 편찬, 『鏤板考』 내 18종

번호	책판명 및 권수		책판상태 및 印紙		
1	小學指南	2卷	南漢開元寺藏	11張	
2	闡義昭鑑	4卷	"	10牒	
3	易傳	4卷	"	9牒	10張
4	詩集傳	21卷	"	30牒	
5	書集傳	7卷	"	13牒	10張
6	大學章句	1卷	"	19牒	10張
7	論語正音	4卷			
8	孟子集註	7卷			
9	中庸章句	1卷			
10	通鑑節要	50卷	南漢開元寺藏 刳缺	33牒	5張
11	十九史略通考	8卷	" 刳缺	15牒	10張
12	三略	3卷	南漢開元寺藏	1牒	5張
13	兵學指南	5卷	"	3牒	
14	千字文	1卷	"	1牒	7張 1片
15	澤堂集	10卷	"	34牒	
	續集	6卷			
	別集	18卷			
16	萬休集	11卷	"	16牒	8張

4. 1840년경 작성, 규장각 소장 『各道冊板目錄』 ‘南漢’條 책판

번호	책판명	印紙
1	易本義	6卷 1張
2	易經傳	9卷 16張
3	書傳	11卷 3張
	附錄	1卷 15張
4	詩傳	13卷 13張
	附錄	1卷 13張
5	論語	6卷 10張
6	孟子	8卷 16張
7	中庸	1卷 11張
8	大學	18張
	附錄 以上奎壁	1卷 4張
9	小學 2張缺	2卷 19張
10	御製小學指南 2張缺	1卷 2張
11	通鑑 刵缺	30卷 17張
12	大千字 4張缺	1卷 12張
13	史略 4張缺	3卷 4張
	諺解 18張缺	2卷 2張
14	註解千字 4張缺	1卷 1張
15	小千字 2張缺	16張
16	古文眞寶 40張缺	8卷 5張
17	擊蒙要訣 2張缺	18張
18	日用至訣 刵訣	2卷 2張
19	近思錄 2張缺	3卷 12張
20	澤堂集 28張缺	33卷 5張
21	御製百行源	11張
22	御製追記潛邸自叙仍戒冲子文	12張
23	萬休集 12張缺	8卷 7張
24	闡義昭鑑 2張缺	4卷 5張
	諺解 2張缺	7卷 5張
25	性理吟	18張
26	兵學指南	3卷 4張
27	三略 2張缺	1卷 8張
28	御製諭纂修諸臣	3張
	諺解	3張
총 34종		

5. 1847년 편찬, 『重訂南漢誌』 卷5 「鑲版」條 책판

번호	책판명	책판 수량 및 상태
1	易本義	121板
2	易傳	196板
3	書傳	223板
	附錄	35板
4	詩傳	273板
	附錄	39板
5	論語	130板
6	孟子	176板
7	中庸	31板
8	大學	18板
	附錄	24板
9	小學	59板, 1板折傷
10	御製小學指南	22板, 1板無
11	通鑑	617板, 132板無, 5板折傷, 7板蠹傷, 實在473板
12	史略	1, 2卷 並64板, 2板蠹傷, 4板疊, 實58板
	諺解	42板, 6板無, 3板朽傷, 實33板
13	擊蒙要訣	18板, 1板無
14	近思錄	72板, 1板無
15	日用至訣	42板, 19板無, 實23板
16	性理吟	16板, 1板傷
17	古文眞寶	165板, 17板無, 3板朽傷, 實145板
18	御製百行源	11板
19	御製追記潛邸自叙文	12板
20	御製諭纂修諸臣文	3板
	諺解	3板
21	澤堂集	665板, 8板無, 6板傷, 實651板
22	萬休集	167板, 6板無
23	老稼齋集	109板
24	註解千字文	21板, 2板傷
25	小千字文	16板, 1板傷
26	大千字文	32板, 韓石峯謄書, 1板無, 1板傷, 實30板
27	闡義昭鑑	85板, 1板無
	諺解	145板
28	三略	28板, 1板傷
29	兵學指南	64板
총 32종		